

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25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오늘의 핵심

- 1. 10/23 주간 호주 중량 양 지표는 1,128¢/kg(+0.8%, 한 달 +3.5%)으로 올랐고, 재입식 양 지표는 1,189¢(-0.5%)로 소폭 내렸습니다. 양 출하는 194,802두로 보합, 성양은 80,548두(+8.6%)였습니다. (MLA 주간 상황)
- 2. 가공업체 구매 그리드(43주차)는 탐워스 양 A\$10.30~11.00/kg, 스타웰 신규 시즌 양 10.70~11.00달러, 머튼 8.00~8.50달러(HSCW) 수준입니다. (Agora Marketplace)
- 3. 미국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업계는 최대 6~8년의 수입 제한(세이프가드)을 요구하며 현재 21%인 자국산 점유율을 40%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호주·뉴질랜드는 피해를 부인했고, 피해 판정은 11/13까지 나옵니다.
- 4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)은 10/12 기준 북섬 NZ\$209, 남섬 NZ\$206으로 보합이며, 1년 전보다 17% 높습니다.
- 5. 10/22 와가-그리피스 경매는 품질 저하로 신규 시즌 양 값이 내렸지만 중량 양 경쟁은 여전히 강했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/23 67.74위안/kg(+1.1%)으로 반등했습니다. (Agora, 농업농촌부)
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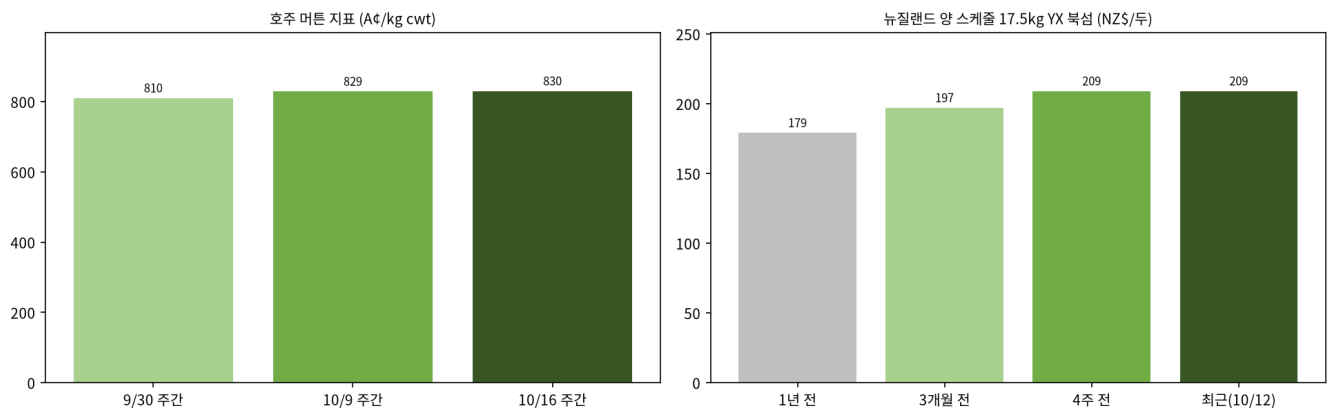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	1,153 A¢/kg cwt	전주 +5%	MLA 주간 상황
호주	머튼 지표 (10/16 주간)	830 A¢/kg cwt	강보합 (전주 829)	MLA 주간 상황
호주	중량 양 지표 (10/23 주간)	1,128 A¢/kg cwt	전주 +0.8%, 한 달 +3.5%	MLA 주간 상황
호주	재입식 양 지표 (10/23 주간)	1,189 A¢/kg cwt	전주 -0.5%	MLA 주간 상황
호주	포브스 무역용 / 중량 양 평균 (10/20)	1,097~1,222 / 1,068~1,199 A¢/kg cwt	양 출하 24,800두 (-6,350)	Agora(포브스)
호주	포브스 머튼(메리노 암양 18~24kg) (10/20)	913 A¢/kg cwt	강세	Agora(포브스)
호주	벤디고 도축용 양 주요 등급 (10/19)	1,120~1,180 A¢/kg cwt	강보합, 양 19,624두 (+774)	Agora(벤디고)
호주	전국 양 / 성양 출하 (10/23 주간)	194,802 / 80,548두	보합 / +8.6%	MLA 주간 상황
호주	가공업체 양 구매 그리드 43주차 (탐워스 / 스타웰 신규 시즌)	A\$10.30~11.00 / 10.70~11.00/kg HSCW	10/21 고시	Agora Marketplace
호주	가공업체 머튼 구매 그리드 43주차 (탐워스 / 로베탈 중량)	A\$8.50 / 8.00/kg HSCW	10/22 고시	Agora Marketplace
호주	NTLI (9/30 주간, ABARES)	1,088 A¢/kg cwt	전년 -8%	ABARES
호주	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	1,226 A¢/kg cwt	-	MLA 주간 상황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	1,329 A\$/kg cwt	-10¢	AuctionsPlus
뉴질랜드	양 도체가 상단 (10월 셋 째 주)	최고 NZ\$12.20/kg CW	소 도체가 약 NZ\$10/kg	NZ Herald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복섬 (10/12)	NZ\$209/두	4주 전 209, 1년 전 179	interest.co.nz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12)	NZ\$206/두	4주 전 205, 1년 전 176	interest.co.nz
호주	와가 20~24kg / 24~26kg 무역용 양 평균 (10/15)	1,192 / 1,189 A\$/kg cwt	두당 +5~7달러	Agora(와가)
호주	와가 30kg 이상 대형 양 평균 (10/15)	1,082 A\$/kg cwt	소폭 강세, 두당 A\$345~405	Agora(와가)
호주	호삼 중량·대형 무역용 양 평균 (10/14)	1,185 / 1,180 A\$/kg cwt	두당 +5~20달러	Agora(호삼)
호주	호삼 수출 등급 양 평균 (10/14)	1,150 A\$/kg cwt	두당 A\$318~347	Agora(호삼)
호주	야스 24~26kg 무역용 양 (10/14)	1,120~1,150 A\$/kg cwt	두당 +6달러	Agora(SELX 야스)
호주	야스 가공용 머튼 (10/14)	800~900 A\$/kg cwt	두당 +8~10달러	Agora(SELX 야스)
호주	벤디고 무역·중량 양 (10/12)	1,100~1,180 A\$/kg cwt	전체 평균 두당 A\$267(+5)	Agora(벤디고)
호주	JBS 남호주 신규 시즌 양 구매가 (서호주산)	A\$11.20/kg HSCW	-	Agora Marketplace
중국	양고기 도매 평균 (10/23)	67.74 CNY/kg	전일 +1.1%	농업농촌부
중국	양고기 도매 주간 평균 (10/9~15)	67.11 CNY/kg	전주 -1.0%, 전년 +8.1%	Foodmate(농업농촌부 주간)
뉴질랜드	대미 양고기 관세 (현행)	13.2%	인상 여부 ITC 심사 중	Farmers Weekly NZ
뉴질랜드	Westpac 양고기 가격지 수 (10/7)	686	12월 681 전망	Westpac Agri Bites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MLA 주간 시황, MLA 주간 시황(10/9), interest.co.nz

국가별 주요 뉴스

호주

1. MLA에 따르면 10/23 주간 양·양고기 지표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견조했습니다. 중량 양 지표는 1,128¢/kg(+0.8%, 31,448두), 재입식 양은 1,189¢(-0.5%)이고, 성양 출하가 8.6% 늘었습니다. [MLA 주간 상황](#)
2. Mecardo는 양 출하가 늘었는데도 중량 양 가격이 버티고 있으며, 좋은 계절 여건과 높은 수익으로 암양 가격이 산지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. [Mecardo](#)
3. 10/22 와가는 품질이 떨어져 대부분 등급이 내렸지만 중량 양 경쟁은 강했고, 그리피스는 출하가 10,750두(-2,200)로 줄었는데도 신규 시즌 양이 약했습니다. 털을 깎은 중량 양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. [Agora, Agora Updates](#)
4. 가공업체 43주차 구매 그리드는 탐워스 양 A\$10.30~11.00/kg, 로베탈 신규 시즌 양 10.50~10.80달러, 스타웰 10.70~11.00달러이고, 머튼은 탐워스 8.50달러, 로베탈 8.00~8.40달러입니다. [Agora Marketplace](#)
5. Agora에 따르면 10/20 양 시장은 NSW·남호주·태즈메이니아·서호주에서 수요가 강해 대체로 올랐고, 10/21에도 퀸즐랜드·NSW·빅토리아에서 품질 개선과 매수 경쟁으로 램·머튼 가격이 올랐습니다. [Agora Livestock](#)
6. 10/20 포브스 경매는 양 출하가 24,800두(-6,350)로 줄었고, 신규 시즌 양은 두당 5~8달러 올랐습니다. 무역용 양은 1,097~1,222¢/kg, 중량 양은 1,068~1,199¢/kg, 수출용 양은 두당 A\$320~388였고, 머튼도 다시 강세였습니다. [Agora\(포브스\)](#)
7. Agora Livestock의 10/19 양 시장 요약에 따르면 NSW는 출하가 줄고 매수 경쟁이 강해 램·머튼 가격이 올랐고, 빅토리아 벤디고는 공급 상황이 엇갈렸습니다. [Agora Livestock](#)
8. 미국 양 업계는 10/16 ITC 공청회에서 최대 6~8년의 셰이프가드를 요구했습니다. 현재 21%인 미국산 점유율을 30~40%대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. 호주·뉴질랜드산은 미국 양고기 시장의 약 80%를 차지하며, 호주 대표단은 미국 가공업체도 수요를 맞추려면 수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([Farmonline](#), [Sheep Central](#))
9. 10/19 벤디고 양 경매는 총 26,554두(-496)였고, 양은 19,624두로 774두 늘었습니다. 도축용 양 주요 등급은 1,120~1,180¢/kg으로 강보합이었고, 18~20kg 교잡종은 1,145¢(+20¢), 재입식용은 1,250¢이었습니다. [Agora\(벤디고\)](#)

뉴질랜드

1. 뉴질랜드 양 도체가는 최고 NZ\$12.20/kg, 소는 NZ\$10/kg 안팎으로 강세이며, 목초 생육이 좋아지며 농가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. [NZ Herald](#)
2. 미국 양고기위원회(American Lamb Board)는 수입 양고기 점유율이 커지자 품질·효율 개선 연구에 체크오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. 뉴질랜드·호주산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치입니다. [RFD-TV](#)
3. ITC 공청회에서 미국 농가·가공업체들이 잇따라 나와 뉴질랜드산 수입이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. [Farmers Weekly NZ](#)
4. 호주·뉴질랜드 대사는 ITC에 양국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시장을 키우고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[Inside U.S. Trade](#)
5. B+LNZ의 케이트 애클랜드 의장이 미국의 수입 양고기 공청회에 나가,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[NZ Herald](#)
6. 호주·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에 미국 하원의원 68명이 서명했습니다. 작년 조사 요청 서한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. Greenstone Meats는 워싱턴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7.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(MIA)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,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8.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,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9. 미국 양 산업은 미국 내 소비에서 국산 비중이 30%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
참고: 경쟁 공급국

1. 우루과이의 1~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% 줄었습니다(우루과이 양모청). ([World Beef Report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호주 가공업체 구매 그리드가 양 kg당 A\$10.30~11.00, 머튼 8.00~8.50달러에 형성돼 있어, 한국향 양고기·머튼 오퍼도 이 원가를 밑돌기는 어렵습니다. 털 깎은 중량 양 공급이 늘어나는 11월에 가격 조정이 있는지 지켜볼 만합니다. (Agora Marketplace)
- 미국 업계가 최대 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어, 관세나 쿼터가 확정되면 호주·뉴질랜드산 물량이 아시아로 돌며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미국 생산자 다수(49곳 중 31곳)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한 점은 호주·뉴질랜드에 유리한 근거입니다. 그래도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(11/13 전후)이 4분기 최대 변수이고, 미국 의회의 압박까지 커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관세가 오르면 호주·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,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산: 신규 시즌 양 출하가 늘기 시작했지만 가공업체 경쟁이 강해 동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. NSW 등 동부는 강세이지만 서호주는 출하가 많아 약세여서, 서호주산 물량 위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주간 평균이 전년보다 8% 높아, 중국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%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,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한 줄 요약

호주 중량 양 지표가 1,128¢로 오르고 가공업체 그리드도 kg당 A\$10~11에 머물며 뉴질랜드 도체가도 높아 산지발 원가 부담이 크므로,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(11/13) 전후의 물량 변화를 보며 필요한 물량만 나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